

# 호남 장류기업 매일식품, 美 뉴스위크 소개 '화제'

오상호 대표 인터뷰 등 통해 심층 보도  
지속가능 한식 세계화 실현 가치 부여  
1945년 설립 장수기업... 'K-푸드' 선도  
"세계인들, 한국의 맛 경험하도록 노력"



오상호 매일식품 대표이사

호남 전통 장류 기업 '매일식품(Maeil Foods·대표이사 오상호)'이 최근 세계적인 잡지인 미국 뉴스위크(Newsweek)지에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매일식품(주)에 따르면 매일식품은 1945년 순천의 '김방장유양조장'으로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 한식문화를 전파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최근 창립 8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100년을 향한 의지와 비전을 다졌다.

지난 4일자 미국 뉴스위크는 특집 기사 'Korean Cuisine's Global Popularity Surge(한식의 글로벌 인기 급상승)'를 통해, 한국 식품산업의 글로벌 성장세와 대표 기업들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전통 장류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온 매일식품을 '한국의 맛으로 전통과 현대를 잇다'라는 타이틀로 오상호 대표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깊이 있게 다뤘다.

뉴스위크는 먼저 '매일식품은 전통 장류부터 프리

미엄 라면까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해 가정과 식탁에 사로잡는 정통 한국 맛에 대한 전 세계 수요를 축진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이 따뜻함과 정통성, 기억에 남는 한입을 약속하는 한국식 찌개는 다른 세계로의 친절한 초대장처럼 느껴질 수 있다. 편안함과 발견이라는 보편적인 매력은 매일식품이 지난 80년 동안 한국적인 편안함을 전 세계인에게 선보이며 걸어온 여정과 닮았다'고 매일식품을 소개했다.

이어 뉴스위크는 '1945년 설립된 매일식품은 고추장, 된장 등 장류 제조의 선구자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오상호 대표는 "진정으로 맛있는 맛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터뷰를 언급하며, 매일식품은 이러한 초심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를 융합해 전 세계 소비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오래된

레시피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뉴스위크는 '매일식품은 "Tastier Today, Better Tomorrow(더 맛있는 오늘, 더 나은 내일)"라는 슬로건 아래, 시그니처 소스와 라면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 라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식 세계화의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뉴스위크는 매일식품이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를 수용하고 한식에 관한 관심을 활용했다는 점과, 글로벌 소비자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성장의 핵심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실제로 매일식품은 한국의 대중음악과 드라마가 세계 무대를 휩쓸고 있는 것과 발맞춰 고추장에 오일이나 할라피뇨 등 이국적 재료를 더한 퓨전형 소스 제품을 개발해 미국, 유럽 등 해외 소비자의 입맛을 고려한 맞춤형 K-소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매일식품은 최근 소스뿐 아니라 프리미엄 라면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특히 G. EAST 및 아쭈마리퍼블릭(Ajumma Republic)과 협업해 출시한 'XL 라면'은 SNS와 유튜브 먹방 콘텐츠를 중심으로 바이럴 대히트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매일식품은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공동투자나 유통 확대를 위한 협력 파트너를 활발히 찾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협업을 통해 매일식품은 더 많은 소비자에게 한식의 정수를 선보이고, 기업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국경을 넘어 확장하고자 하는 사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생산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매일식품은 'Made in Korea' 제품이 많은 시장에서 갖는 독특한 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재는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품질과 맛을 철저히 관리하는 전략이 고추장과 프리미엄 라면 같은 대표 제품군에 큰 성공을 가져다주고 있다.

매일식품의 미래 비전은 '세계인이 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맛'을 하나의 문화 사절로 여기며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것.

뉴스위크는 "한식은 발견할 가치가 있다. 한식은 풍부한 맛과 요리 전통의 세계로, 일상적인 식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오 대표의 말에 큰 무게를 실었다.

한편 매일식품은 지난 2013년 오상호 대표가 취임한 이후, '건강한 가정과 아름다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백만불 수출의 탑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 광융합산업진흥회, 미국 광통신전시회 '성과'

6개사 300만 달러 수출계약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진흥회)는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국내 광통신 분야 기업과 함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광통신 전시회(OFC 2025)에 공동관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 총 300만달러(한화 약 44억원)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OFC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광통신산업 전시회로, 이번 진흥회 공동관에서는 고려오트론(주), 선일텔레콤(주), ㈜휘라포토닉스, ㈜옵토마린 등 12개사가 참가해 현장조립형 광 커넥터, 광케이블 접속함체, 산업용 광모듈, 광 스플리터 등 광통신 분야 기업의 우수 제품을 선보이며 해외 바이어와 적극적인 계약 상담을 이끌었다.

특히 고려오트론(주), ㈜휘라포토닉스, 엑스빔테크(주) 등 6개사가 30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처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OFC를 비롯해 광융합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 해외개별전시회, 수출상담회, 시범사업 설치 지원, 인력 양성사업 등 국내 광융합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기업과 상담한 바이어를 올해 10월에 개최하는 'Photonics Korea 2025'에 초청해 상담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경제·산업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김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날 OFC 2025 전시회에 직접 참석해 국내 참여기업 기술력 및 마케팅 홍보에 발 벗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참여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2기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나다운 기자

## 광주은행,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출 지원

광주은행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 거래계약(PPA)을 위해 민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전용 대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PPA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와 재생에너지 전기가 필요한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장점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꾀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민간 RE100(재생에너지 100%) 시장 확대에 발맞춰 ESG(환경·사회적 책임·투명) 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RE100 SOLAR-LOAN' 대출 신상품을 출시했다.

신청 자격은 광주은행에서 정한 재생에

너지 전기공급사와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 고객이다. 시설과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전력 판매 대금 등을 채권 양도용으로 설정하면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총소요자금의 80%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전력 공급계약의 거래단가(원/KWh)와 연간 현금흐름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대출 기간은 전력 공급계약 범위 내 최대 20년까지이며 매월 원금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우대금리는 고객별 최대 연 1.30%P(포인트)까지 제공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국전력노동조합·한전과 함께 '공정 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제공

## 전남지노위·한전, '대안적 노동분쟁 해결' 도입 주목

공정 노사 고충 솔루션 협약 지역 공공기관 최초로 운영

광주·전남 지역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개별분쟁과 집단분쟁에 대한 통합적 예방프로그램이 도입돼 주목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국전력노동조합 및 한전과 함께 대안적 분쟁해결 프로그램인 '공정 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안적 분쟁 해결 프로그램(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판정이나 소송 이외에 화해·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사전적·예방적 분

쟁 해결 방식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한전 노사는 ADR을 도입해 노사분쟁을 신속하게 안정화하고 직장인 고충을 사전에 해결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 노사 솔루션을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한전 노사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방적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직장인 고충 솔루션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부당한 직무 부여나 전보 등 다양한 개별적 권리 분쟁에 대한 사전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 한전 노사에 ADR 전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동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에 개별 분쟁과 집단 분쟁에 대한 통합적 예방프로그램을 지역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것에 그 의미가 크다"며 "한전에 공정노사 솔루션과 직장인 고충 솔루션이 순조롭게 정착돼 모범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노·사·공의 위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번 한전과의 업무협약을 모범적 사례로 언급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도 ADR이 적극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권범 기자

## 광주경총, '회원 만족도 제고' 소식지 발간

광주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경쟁력 강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 지원 확대 등 체계적인 회원관리(CRM)와 회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회원 소식지를 발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소식지 주요내용 등 사업은 △경영애로 해결지원 △노사관계 개선지원 △산업안전 개선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지

원사업 △인적네트워크 확대지원 △금융조찬 포럼 등 교육연수 지원 △기타 회원사 재정지원사업과 구인난 해소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그동안 추진한 다양한 사업과 함께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지원과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해 중대재해 및 산업

안전 예방에 앞장서고 회원사 내 안전한 일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총은 광주와 나주, 담양, 장성, 함평, 영광, 화순, 곡성, 구례 등 지역의 사용자들에 대한 노동관계의 조정, 지원과 제휴를 통한 노사 간의 이해증진 및 협조 체제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건전한 노동운동을 조성케 함으로써 산업평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단체다.

최권범 기자